

#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남재량\*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청년무업자(NEET)의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이 니트이게 되는 요인과 취업을 통해 니트에서 벗어나는 가능성 및 그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15-34세 니트 규모는 생각보다 커서 2004년에 80만 명을 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중반의 20-30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결과이다. 니트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90%를 넘으며 취업준비나 진학준비도 하지 않고 심신에 장애가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쉬고 있는 사람이 30만 명을 넘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준다. 한편 청년들이 니트 상태로 이행하는 요인들을 분석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니트로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니트화 경향은 커지고 있다. 아버지가 종사하던 직종과 고용형태에 따라서도 자녀의 니트 이행 확률은 달라진다. 특히 아버지가 비정규직이었거나 가족종사자인 경우, 그리고 고용주인 경우 니트화 가능성이 정규직인 경우보다 더 크다. 뿐만 아니라 1인당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니트 이행 가능성이 높아져 니트가 부유한 계층의 게으른 자녀에 대한 얘기가 아님을 알려준다. 그리고 니트 가운데 30%는 1년 후에도 그대로 니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심각한 상태인 은둔형 외톨이 등과 같은 형태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 1. 서론

우리는 그동안 청년실업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제는 청년실업이라기보다는 청년 취약계층으로 관심을 돌려야 할 때이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입직의 문제가 아니라 이직의 문제임이 이미 밝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sup>1)</sup> 이제까지 청년실업에 대한 정책들은 이들의 입직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인턴제를 비롯한 입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청년실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청년들은 입직과 이직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간다. 따라서 이들에게 효과적인 정책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구인과 구직에 대한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다.

청년실업을 비롯한 청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 취약계층으로 돌려야 한다. 영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청년 취약계층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니트(NEET) 또는 청년무업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대표적이다. 니트에 대한 연구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일본은 이를 청년무업자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 남재량(2002).

로 확대하여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본에서 청년무업자의 규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클 뿐 아니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년무업자를 비롯한 청년 취약계층의 문제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취약계층에 속하는 청년 개인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들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을 대상으로 청년무업자(NEET)를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며 이들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니트가 아닌 청년 가운데 니트 상태로 이행하게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이행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니트에 속해 있던 개인들을 추적 관찰하여 이들이 취업으로 옮겨감으로써 니트에서 탈출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본다. 아울러 취업으로 이행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분석함으로써 니트의 취업에 대한 함의도 얻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니트를 정의하고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한편 이들의 주된 활동상태에 대해 알아본다. 제3장은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니트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들이 니트로 이행하게 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제4장은 취업상태로 옮겨감으로써 니트를 탈출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본다. 제5장은 이상을 요약하고 결론짓는다.

## II. 청년무업자(NEET)의 실태

### 1. 니트의 정의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줄인 것으로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1999년 영국에서 유래되었다.<sup>2)</sup> 일본에서는 이를 15-34세 연령으로 확대하여 2004년부터 공식적인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년무업자’라고 부른다.<sup>3)</sup> 이 때 ‘무업’이라 함은 일하지 않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로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2004년 후생노동성에서 발간한 노동경제백서에서 청년무업자(니트)는 ‘비노동력인구(취업자 및 실업자 이외의 사람들) 중 15-34세로서 학교를 졸업하고 미혼자이며 가사 및 통학을 하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내각부 연구회는 청년무업자(니트)를 ‘① 고교 및 대학 등의 학교, 예비고

2) The Social Exclusion Unit, 『Bridging the Gap: New Opportunities for 16-18 Year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1999.

3) 일본의 청년무업자(NEET)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는 김기현(2005), 강영배(2005), 정후식(2004), 후타가미 노우키(2005)의 연구를 참조하면 된다.

(입시학원), 전수학교 등에 통학하고 있지 않고, ②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이며, ③ 평소 수입을 동반하지 않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기현(2005)에 따르면 청년무업자를 이와 달리 정의하는 학자도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청년무업자의 규모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청년무업자의 규모는 이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자료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지난 1주간의 상태를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평상상태를 기준으로 한 자료를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이들의 규모는 달라진다.<sup>4)</sup>

본 연구는 청년무업자를 '지난 1주간으로 볼 때 ① 정규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② 일하고 있지도 않으며(즉 취업자가 아니며), 그리고 ③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④ 배우자가 없는(즉 독신인) ⑤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으로 정의한다. 아울러 이를 측정하는 데에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sup>5)</sup>

니트에 대한 이상의 정의에 추가하여 니트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 볼 수도 있다. 취업 희망자는 적어도 일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취업 비희망자와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취업 비희망자를 니트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99년 11월부터 '지난 주에 직장(일)을 원하였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니트를 취업희망 여부로 구분하기로 한다. 다만 이 질문에 해당되지 않는 니트도 있을 수 있는데 1주 동안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4주 동안은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이 곧 그들이다.

## 2. 니트의 규모 및 특성

다음의 <표 1>은 위에서 정의한 청년무업자(니트)를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분석기간은 2004년을 기준으로 최근 10년으로 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1995년 51.0만 명이었던 청년무업자 수는 2004년에 이르면 121.4만 명으로 무려 70.4만 명이나 증가하여 13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5-34세 인구에서 청년무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3.3%에서 2004년 8.4%로 155% 상승하고 있다. 청년무업자의 규모와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외환위기와 때를 같이 한다. 즉 청년 무업자는 1997년만 하더라도 61.9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에 102.2만 명으로 백만명으로 넘어선다. 이듬해인 1999년에 이들의 수는 105.1만 명으로 다소 증

4)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해당하는 「노동력조사」와 이제는 더 이상 조사되지 않고 있는 「고용구조특별조사」에 해당하는 「취업구조기본조사」 중 어떤 자료를 사용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전자는 소위 현 상태 접근법을 사용하여 '지난 1주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후자는 평상상태 접근법을 사용하여 '평상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5) 다만 실업자를 구분하는 데에 있어서 사용되는 구직활동 기간은 '지난 1주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최근 통계청은 실업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삼고 있으나 1996년까지는 이에 대해 묻지 않았고 1997년부터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의 형태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묻고 있으며 2003년 이후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묻고 있다. 본 연구는 1997년 이전 기간의 니트에 대해서도 보고자 하므로 시계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주간 구직활동'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가하였으나 이후 94.0만 명, 100.3만 명, 94.6만 명으로 부침하고 있으나 2003년 들어 114.8만 명으로, 그리고 2004년에 다시 121.4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외환위기 이후 주춤하던 청년무업자의 규모가 2003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청년무업자의 규모가 외환위기와 함께 크게 증가한 것은 당시 실업자의 급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보기 위해 청년무업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인 실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하여보자. 이러한 구분은 아울러 본 연구의 목표집단에 보다 부합하는 후자에 대해 분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표에서 보듯이 구직활동을 하는 니트, 즉 '구직니트'는 1995년 24.1만 명(1.6%)에서 2005년 40.7만 명(2.8%)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구직 니트는 1997년 30.1만 명에서 1998년 60.6만 명으로 외환위기와 함께 급증하며 이후부터 2002년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다. 2003-2004년에 40만 명 수준으로 상승하였지만, 이는 1998년의 60.6만 명에 비해 오히려 20만 명 감소한 것이다. 즉 외환위기 하에서 니트의 급증은 실업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니트의 현황

(단위: 천명,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5-34세 인구	15,458 (100.0)	15,392 (100.0)	15,295 (100.0)	15,803 (100.0)	15,625 (100.0)	15,461 (100.0)	15,240 (100.0)	15,009 (100.0)	14,759 (100.0)	14,504 (100.0)
청년 무업자 (니 트)	510 (3.3)	511 (3.3)	619 (4.0)	1,022 (6.5)	1,051 (6.7)	940 (6.1)	1,003 (6.6)	946 (6.3)	1,148 (7.8)	1,214 (8.4)
구직니트	241 (1.6)	245 (1.6)	301 (2.0)	606 (3.8)	551 (3.5)	396 (2.6)	383 (2.5)	352 (2.3)	397 (2.7)	407 (2.8)
비 구 직 니 트	269 (1.7)	267 (1.7)	318 (2.1)	416 (2.6)	500 (3.2)	544 (3.5)	620 (4.1)	595 (4.0)	751 (5.1)	806 (5.6)
非 니 트	14,948 (96.7)	14,880 (96.7)	14,676 (96.0)	14,781 (93.5)	14,574 (93.3)	14,521 (93.9)	14,237 (93.4)	14,063 (93.7)	13,611 (92.2)	13,290 (91.6)

주: 단, 표에서 '구직니트'는 니트 가운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들로서 니트 가운데 실업자를 말하며 '비구직니트'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임. 그리고 '非니트'는 15-34세에서 니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개인들을 일컫음.

경기변동에 따른 구직 니트의 부침과는 달리, 청년무업자이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구직니트'는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이 매우 적으며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구직 니트

는 1995년 26.9만 명으로 구직니트 24.1만 명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2002년에 2.5만 명 감소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비구직 니트는 지속적이며 강한 증가추세를 가지고 있어, 2004년에 이르면 무려 80.6만 명으로 증가한다. 이는 2004년의 구직 니트 규모인 40.7만 명의 두 배에 해당한다. 이는 청년무업자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이들 중 실업자(구직니트)의 규모와 비중이 커진 데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비구직 니트의 증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비구직 니트는 구직 니트와 달리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으며 강한 상승추세를 갖는다는 점에서도 구분되는 성격을 가진다.

본 연구는 청년 실업자보다 청년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제부터 비구직 니트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니트라 함은 비구직 니트를 일컫는다.

이제 니트를 성, 연령, 교육정도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인적특성을 살펴으로써 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 알아보자. <표 2>에서 보듯이 1995년 니트 가운데 73.1%가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6.9%를 차지하여 남성의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후 남성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4년에 이르면 64.8%에 불과하고 여성의 비율이 35.2%로 높아진다. 실제로 니트 가운데 여성의 수는 1995년에 7.3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 이르면 무려 28.4만 명으로 289%나 증가한다. 반면 남성 니트의 증가율은 여성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1995년의 19.7만 명에서 2004년의 52.3만 명으로 32.6만 명이나 증가하고 있다. 즉 니트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높아졌으나 니트 증가의 많은 부분은 남성에 의존하고 있다. 아울러 성별로 구분하여 보더라도 니트의 증가는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강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표 2> 니트의 성분포

(단위: 천명,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남성	197 (73.1)	194 (72.6)	229 (71.9)	299 (72.0)	351 (70.2)	389 (71.4)	438 (70.6)	414 (69.6)	508 (67.6)	523 (64.8)
여성	73 (26.9)	73 (27.4)	89 (28.1)	116 (28.0)	149 (29.8)	156 (28.6)	182 (29.4)	181 (30.4)	244 (32.4)	284 (35.2)
계	269 (100.0)	267 (100.0)	318 (100.0)	416 (100.0)	500 (100.0)	544 (100.0)	620 (100.0)	595 (100.0)	751 (100.0)	806 (100.0)

이제 니트의 연령분포를 살펴보자. <표 3>은 이를 정리한 것인데 모든 연령층에서 니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추세를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는 20세 이상의 연령집단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 이들의 비중을 더욱 높이고 있다. 반면 10대 니트의 비중은 1995년 22.9%에서 2004년 13.5%로 감소하였다.

이제 니트의 학력분포를 살펴보자. <표 4>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니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력집단은 고졸자이며 이들의 비중은 분석기가 전체에서 평균 59.7%를 차지하며 약간의 등락을 경험하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준다. 니트에서 고졸자의 비중이 거의 60%에 달한다는 것은 <부표 1>에서 보듯이 15-34세 연령에서 고졸자 비율이 동일 기간 동

안 53%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표 3> 니트의 연령분포

(단위: 천명,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5-19세	62 (22.9)	58 (21.6)	82 (25.9)	86 (20.8)	111 (22.3)	113 (20.8)	117 (18.8)	96 (16.2)	123 (16.3)	109 (13.5)
20-24세	112 (41.6)	111 (41.7)	124 (38.9)	174 (41.9)	198 (39.6)	222 (40.9)	248 (39.9)	250 (42.0)	335 (44.7)	359 (44.5)
25-29세	64 (23.8)	62 (23.1)	74 (23.2)	113 (27.2)	143 (28.6)	149 (27.4)	173 (27.9)	164 (27.6)	199 (26.5)	226 (28.1)
30-34세	32 (11.8)	36 (13.5)	38 (12.0)	42 (10.1)	48 (9.6)	60 (10.9)	82 (13.3)	85 (14.2)	94 (12.5)	112 (13.9)
계	269 (100.0)	267 (100.0)	318 (100.0)	416 (100.0)	500 (100.0)	544 (100.0)	620 (100.0)	595 (100.0)	751 (100.0)	806 (100.0)

니트 가운데 중졸이하자의 비중은 1995년의 24.1%에서 2004년의 9.4%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전문대졸과 대졸이상의 비중은 각각 6.8%에서 12.6%로, 11.4%에서 18.3%로 상승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인 고학력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청년무업자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알려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졸이하자의 비중이 24.1%에서 9.4%로 감소하는 것은, 15-34세 인구 전체에서 이 비중이 동일 기간 동안 26.3%에서 18.1%로 감소하는 것에 비해, 매우 급격하다. 이는 아마도 그동안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률의 상승이라는 고학력화 현상이 15-34세라는 젊은 연령층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전문대졸과 대졸이상의 비중은 15-34세 인구에서 각각의 비중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 4> 니트의 학력분포

(단위: 천명,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중졸이하	65 (24.1)	64 (24.0)	79 (24.7)	67 (16.1)	77 (15.4)	86 (15.8)	99 (15.9)	90 (15.1)	73 (9.7)	76 (9.4)
고졸	156 (57.8)	153 (57.3)	186 (58.3)	252 (60.6)	306 (61.3)	328 (60.2)	365 (58.9)	354 (59.5)	478 (63.6)	481 (59.6)
전문대졸	18 (6.8)	17 (6.4)	20 (6.1)	33 (8.0)	39 (7.8)	52 (9.6)	67 (10.8)	62 (10.5)	78 (10.4)	102 (12.6)
대졸이상	31 (11.4)	33 (12.3)	35 (10.9)	63 (15.3)	78 (15.6)	78 (14.3)	89 (14.4)	89 (15.0)	122 (16.3)	148 (18.3)
계	269 (100.0)	267 (100.0)	318 (100.0)	416 (100.0)	500 (100.0)	544 (100.0)	620 (100.0)	595 (100.0)	751 (100.0)	806 (100.0)

고졸 니트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들의 규모 변화는 전체 니트의 규모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실제로 표에서 보듯이 고졸 니트의 규모는 15.6만 명에서 48.1만 명으로 지

난 10년 동안에 무려 32.5만 명 증가하였다. 반면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전문대졸과 대졸  
 니트는 각각 10.2만 명(1.8만 명에서 8.4만 명)과 11.7만 명(3.1만 명에서 14.8만 명) 증가하여  
 21.9만 명 증가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한편 중졸이하의 규모는 1995년의 6.5만 명에서 2004년의  
 7.6만 명으로 별 변화가 없으며 2004년의 규모는 2001-2002년에 비해 상당 정도 감소한 것이다.

### 3. 니트의 주된 활동상태

이제 위와 같은 인적특성을 가진 청년무업자들은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학교에 다니지  
 도 않고 일하지도 않으면서 훈련을 받지도 않고 가사나 육아활동도 하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이들  
 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 걸까?

<표 5>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개인들의 주된 활동상태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심신  
 장애의 비중이 1990년대 중반 20% 수준에서 2000년대 중반 10% 아래로 하락한 것 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기타’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이다. ‘기타’의 비중은 1995년에도 80.8%로  
 높았으며 2004년에 이르면 90.6%로 더욱 높아진다. 여기에서 ‘기타’라 함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  
 표에서 분류된 ‘기타’를 말하는 것으로 ‘일하였음, 일시휴직, 구직활동, 가사·육아, 통학, 심신장애’  
 가운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니트들이 무슨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표 5> 니트의 주된 활동상태 분포

(단위: 천명, %)

활동상태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심신장애	52 (19.2)	54 (20.3)	55 (17.4)	49 (11.8)	54 (10.8)	60 (11.0)	62 (10.1)	65 (10.9)	63 (8.4)	68 (8.4)
‘기 타’	218 (80.8)	212 (79.7)	263 (82.5)	353 (84.8)	430 (86.0)	473 (86.8)	545 (87.8)	518 (87.1)	681 (90.6)	731 (90.6)
그 외	0 (0.0)	0 (0.0)	0 (0.1)	14 (3.4)	16 (3.3)	12 (2.2)	13 (2.1)	12 (2.0)	7 (1.0)	8 (0.9)
계	269 (100.0)	267 (100.0)	318 (100.0)	416 (100.0)	500 (100.0)	544 (100.0)	620 (100.0)	595 (100.0)	751 (100.0)	806 (100.0)

주: 단, ‘그외’는 일하였음, 일시휴직, 구직활동, 가사·육아, 통학을 모두 모은 것임.

다행히 2003년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이전의 조사에서 질문하던 개인들의 활동상태에 대  
 한 응답항목 가운데 기타를 매우 자세하게 분류하여 묻고 있다. 따라서 2003년 이후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니트의 활동상태를 살펴보자. <표 6>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  
 서 두드러지는 것은 쉬었음이라는 응답이 2003년 34.7%, 2005년 38.5%로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취  
 업준비와 진학준비 및 군입대 대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쉬었다는 응답에는 크게 미  
 치지 못한다. 만약 쉬었다고 응답한 개인들이 일시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15-34세의 젊은 개인들이 심신에 장애가 있지도 않으면서 어떤 생산적인 일이나 이를 위한 준비도 하지 않고 마냥 쉬고 있는 비중이 이처럼 높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국가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의 규모가 203년의 26.1만 명에서 2004년 31.0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표 6> 니트의 주된 활동상태 세분

(단위: 천명, %)

	취업준비	진학준비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 준비	쉬었음	'기타'	그 외	계
2003년	122 (16.2)	115 (15.3)	63 (8.4)	90 (12.0)	11 (1.5)	261 (34.7)	81 (10.8)	7 (1.0)	751 (100.0)
2004년	157 (19.5)	111 (13.7)	68 (8.4)	63 (7.8)	8 (1.0)	310 (38.5)	81 (10.1)	8 (0.9)	806 (100.0)

주: 단, 그 외 : 일하였음, 일시휴직, 구직활동.

#### 4. 취업희망여부에 따른 니트의 분류

앞에서 니트를 정의할 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니트를 취업희망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다만 조사표의 설계상 지난 1주간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4주 동안에는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은 취업희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표 7>에서 기타라는 표현은 이들을 가리킨다.

표에서 보듯이 니트 가운데 취업 희망자의 비율은 2000년의 8.7%가 가장 높은 경우일 정도이며 니트의 대부분은 취업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반면 2000년에도 취업 비희망자의 비율은 88.5%로 높고 2001년 이후 이들의 비율은 모두 90%를 넘을 정도로 높다.

<표 7> 취업희망 여부에 따른 니트의 분류

(단위: 천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취업 희망자	47 ( 8.7)	43 ( 6.9)	29 ( 4.9)	45 ( 5.9)	55 ( 6.8)
취업 비희망자	482 ( 88.5)	562 ( 90.6)	553 ( 92.9)	694 ( 92.4)	737 ( 91.4)
기타	15 ( 2.8)	16 ( 2.5)	13 ( 2.2)	12 ( 1.7)	15 ( 1.8)
계	544 (100.0)	620 (100.0)	595 (100.0)	751 (100.0)	806 (100.0)

그렇다면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니트들은 어떤 구분되는 특성이나 시간에 걸친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까? 특별히 자료를 쫓기하지는 않겠으나 취업 비희망 니트들은 <표 2> ~ <표 3>에서



본 니트의 인적특성과 구분되지 않으며 시간에 걸쳐 특별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

### III. 니트 결정요인

이제 니트가 아닌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니트 상태로 이행하게 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들이 있다. 첫째 가구소득 수준이 청년들의 경제활동 및 니트 상태로 이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가설이다.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비근로 소득은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자녀의 경제활동 참여는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가설은 지역노동시장과 관련되어 있다. 노동시장이 지역별로 구분되는 특성을 갖는 경우 지역간 노동이동에 따른 편익보다 비용이 더욱 커지면 취업을 위한 지역간 노동이동이 낮아지게 되고 취업기회를 갖지 못한 청년은 니트 상태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자녀가 1명뿐인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자녀의 타 지역으로 이동은 부모와 자녀의 지역이동에 따른 편익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일본에서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학자로 코스키를 들 수 있다.<sup>6)</sup>

세 번째 가설은 가족배경이다. 특히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등이 자녀의 니트화 경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이다. The Social Exclusion Unit(1999)은 부모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이냐 아니면 비숙련직이냐에 따라 자녀의 니트화 경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 연결망이나 불황 등이 청년의 니트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설들과 자료의 가용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니트로 이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변수들을 확인하기로 한다. 추정에 사용할 모형은 로짓모형으로서 니트로 이행확률의 승산비를 종속변수로 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변수들을 공변수로 삼는다. 개인의 인적특성과 가구원 1인당 가구소득 및 거주지역은 세 모형에 모두 공변수로 포함된다. 둘째 모형은 여기에다 가족배경으로 추가하고 있으며 셋째 모형은 다시 출생지역과 성장지역을 공변수로 포함하고 있다. 가족배경을 추가한 것은 영국에서 연구 결과(1999)를 반영한 것이며 출생지역과 성장지역을 추가한 것은 사회적 연결망의 대리변수로 삼기 위한 것이다.

$$\text{모형1} : \ln\left(\frac{p_i}{1-p_i}\right) = \beta_0 + \beta_1 X_{1i} + \beta_2 X_{2i} + \beta_3 X_{3i} + u_i$$

단, 여기서  $X_1$ 은 개인의 인적특성,  $X_2$ 는 가구원 1인당 가구소득,  $X_3$ 는 현재 거주지역을 나타낸다.

$$\text{모형2} : \ln\left(\frac{p_i}{1-p_i}\right) = \beta_0 + \beta_1 X_{1i} + \beta_2 X_{2i} + \beta_3 X_{3i} + \beta_4 X_{4i} + \epsilon_i$$

---

6) 김기현(2005) 참조.

단, 여기서  $X_4$ 는 가족배경으로서 아버지(또는 어머니)의 학력, 직종, 고용형태 등을 나타냄.

$$\text{모형3 : } \ln\left(\frac{p_i}{1-p_i}\right) = \beta_0 + \beta_1 X_{1i} + \beta_2 X_{2i} + \beta_3 X_{3i} + \beta_4 X_{4i} + \beta_5 X_{5i} + e_i$$

단, 여기서  $X_5$ 는 출생지역과 성장지역을 나타냄.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차 조사에서 출생지와 14세(중학생) 무렵 거주지역을 묻고 있으며 부모의 학력과 직업 고용형태 등을 묻고 있다. 2차 조사 이후에는 신규 설문지에서 이들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조사에 응답한 모든 개인들에 대해 출생지역과 성장지역, 그리고 가족배경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앞에서 사용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니트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소득은 1인당 가구소득을 구하여 로그를 취한 다음 분석에 사용하기로 한다. 가족배경 변수로는 아버지(또는 어머니)의 교육정도, 직종 및 고용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용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개인의 성별더미 변수는 남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학력더미 변수들은 대졸이상 학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아버지(또는 어머니) 학력 역시 대졸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직종은 고위직, 고용형태는 정규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표 8>은 위에서 제시한 모형들을 추정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듯이 추정치들은 모두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모형1에서 추정된 결과들은 모형2나 모형3의 추정결과와 그리 다르지 않은데 성별더미를 보면 추정치가 양(+)의 값을 가져 남성이 여성보다 니트로 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과 연령제곱 변수에 대한 계수 추정치를 보면 부호가 양과 음으로 나타나 청년 가운데 연령이 높을수록 니트로 될 가능성이 높지만 가능성의 증가 정도는 줄어들고 있다. 학력더미 변수들에 대한 추정치들을 보면 저학력자인 중졸이하자의 니트 이행 가능성이 대졸이상의 경우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난다. 고졸이나 전문대졸의 경우에는 대졸이상에 비해 니트화 경향이 낮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 즉 청년들이 니트 아닌 상태에서 니트로 옮겨가는 경향은 학력이 높을수록 더욱 커진다. 중졸이하 저학력자들은 니트로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에 대한 계수 추정치를 보면 표에서 보듯이 음의 값을 갖는다. 이는 1인당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니트 이행 가능성이 커지고 고소득 가구일수록 자녀의 니트 경향인 작음을 알려준다. 이는 부모의 높은 소득이 자녀의 비경제활동화 및 니트화를 초래한다는 가설과 다른 결과이다.<sup>7)</sup> 이러한 결과는 니트가 더 이상 집안이 부유한 가정의 나태한 자녀에 대한 문제가 아님을 알려준다. 켄거루족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현실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며, 니트는 빈곤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니트와 관련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다.

7) 일본의 경우에도 니트의 상당수는 저소득층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8> 니트 결정요인 추정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상수항	-19.9252***	-20.8657***	-20.8635***
성별더미(남성기준)	0.8450***	0.8619***	0.8712***
연 령	1.6417***	1.6757***	1.6746***
연령제곱	-0.0366***	-0.0376***	-0.0375***
학력더미(중졸이하)	-0.5584***	-0.6148***	-0.5993***
학력더미(고 졸)	-0.0512***	-0.0870***	-0.0563***
학력더미(전문대졸)	-0.0658***	-0.0731***	-0.0740***
가구원 1인당 가구소득의 로그	-0.1322***	-0.1097***	-0.1108***
아버지의 학력(초졸이하)		0.7330***	0.7535***
아버지의 학력(중 졸)		0.7344***	0.7554***
아버지의 학력(고 졸)		0.4272***	0.4328***
아버지의 학력(전문대졸)		0.1378***	0.1572***
아버지의 직종(전문직)		0.3051***	0.2762***
아버지의 직종(준전문직)		0.1926***	0.1975***
아버지의 직종(사무직)		-0.0303***	-0.0341***
아버지의 직종(서비스직)		0.0812***	0.0643***
아버지의 직종(판매직)		0.2248***	0.2065***
아버지의 직종(농어업숙련직)		0.2857***	0.2934***
아버지의 직종(기능직)		-0.1676***	-0.2022***
아버지의 직종(조작조립직)		0.2199***	0.1728***
아버지의 직종(단순노무직)		0.2359***	0.2222***
아버지의 고용형태(비정규직)		0.2132***	0.2100***
아버지의 고용형태(고용주)		0.2506***	0.2259***
아버지의 고용형태(자영업자)		-0.1441***	-0.1508***
아버지의 고용형태(가족종사자)		0.2284***	0.3064***
관측수 / -2 Log L	10,285 / 13,669,328	10,227 / 13,389,511	10,227 / 13,312,435

다음으로 모형2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자. 성별더미와 연령에 대한 계수 추정치들은 모형1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다만 가족배경 변수들을 분석에 추가할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니트화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며 중졸이하의 낮은 니트화 경향은 더욱 낮아진다.

이제 가족배경 변수들의 추정치들을 살펴보자. 아버지의 학력에 대한 계수 추정치들은 표에서 보듯이 모두 정(+)의 값을 가지고 있어 대졸이상 학력에 비해 니트화 경향이 더 높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니트화 가능성은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즉 전문대졸에 대한 추정치

는 0.1378로서 기준으로 삼은 대졸이상의 경우보다 높으며 고졸의 경우 0.4272로서 전문대졸의 경우보다 크며 중졸과 초졸이하<sup>8)</sup>의 경우에는 유사하며 고졸의 경우보다 더 크다. 자녀의 학력은 높을수록 니트화 경향이 커지지만 아버지의 학력은 낮을수록 자녀의 니트화 경향을 더욱 높인다.

다음으로 아버지가 종사하던 직종에 대한 추정 결과를 보자. 표에서 보듯이 고위직<sup>9)</sup>에 비해 대부분의 직종에서 니트화 경향이 더 높다. 이는 전문직과 준전문직의 경우에도 그러할 뿐 아니라 조작·조립직이나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니트화 경향이 더 클 뿐 아니라 큰 정도도 비슷하다. 다만 아버지가 기능직일 경우는 고위직인 경우보다도 니트화 경향이 낮다. 사무직인 경우도 그러한 그 정도는 크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종사하던 직종에 따라 자녀의 니트화 가능성이 달라지지만 직무능력이 높은 직종과 낮은 직종에 의해 이러한 가능성에 체계적인 차이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듯 하다.

아버지가 종사하던 고용형태를 보면 아버지가 정규직인 경우에 비해 비정규직인 경우 자녀의 니트 이행 가능성이 더 크다. 아버지가 가족종사자일 경우와 고용주일 경우도 그러하나 아버지가 자영업하는 경우 니트화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진다. 우리는 아버지의 고용형태가 자녀의 니트 경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가 고용주인 경우와 비정규직·가족종사자인 경우 니트화 경향이 정규직의 경우에 비해 더 높다는 사실은 니트 이행 가능성에 양극화 가능성을 제기하게 한다.

이제 모형3에 대한 추정결과를 살펴보자. 모형3은 모형2에다 출생지역과 성장지역을 추가한 실증모형이다. 이 때 추정결과는 표에서 보듯이 모형2의 경우와 그리 다르지 않다. 따라서 추정결과에 대한 해석도 유사하다. 다만 <부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sup>10)</sup> 모형3에 새로 추가한 출생지역 및 성장지역 변수들에 대한 계수 추정치들이 대부분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생지역과 성장지역은 부모의 사회적 연결망과 관련이 깊다. 기존에 형성된 지역주의가 취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 그러한 연결망을 갖춘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니트로 될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III. 니트의 취업으로 탈출요인

#### 1. 니트의 취업 이행확률

시각을 달리하여 니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후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 지 살펴보자. 나아가 니트 가운데 취업상태로 옮겨감으로써 니트상태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

8) 아버지의 교육정도에 대한 응답에서 무학이나 초졸이하로 답한 경우도 많았으므로 이를 청년의 경우와 달리 보다 더 세분하였다.

9) 입법 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10)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부표로 처리하였다.

한다.

다음의 <표 9>는 2003년과 2004년의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패널로 구축하여 마코프 이행확률(Markov transition probability)을 구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패널자료에 존재하는 니트는 58.4만명으로서 이들 가운데 30%인 17.5만명은 1년 뒤에도 계속 니트에 남아 있으며 66%인 38.5만명은 비니트상태로 탈출한다. 즉 작년 니트인구 100명 가운데 66명은 니트에서 탈출하고 있으나 30명은 니트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1년 뒤에도 그대로 니트상태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마코프 안정성 가정(Markov stationary assumption)을 적용하여 보면 니트에서 계속 머무는 기간은 1.43년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니트에서 비니트로 옮겨가는 사람이 38.5만 명인 반면 비니트에서 니트로 진입하는 사람은 이보다 더 많은 47.4만 명이다. 이로 인해, 실업과 니트 간의 유입출 규모는 2.3만 명과 2.6만 명으로 별 차이 없으므로, 니트의 규모는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해석을 동시에 제기하게 한다. 하나는 니트 가운데 70%가 1년 내로 니트에서 탈출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우리나라의 니트가 매우 정체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1년 뒤에도 여전히 니트에 머물고 있을 확률이 30%나 되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를 비롯하여 더욱 심각한 상태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표 9> 니트와 다른 상태간의 이행

(단위: 천명, %)

		니트상태	실업상태	비니트상태
니트 상태	584	175 (30.0)	23 (4.0)	385 (66.0)
실업 상태	296	26 (8.8)	37 (12.6)	233 (78.6)
비니트상태	12,854	474 (3.7)	213 (1.7)	12,166 (94.7)

그렇다면 니트에서 비니트로 옮겨간 사람들의 경제활동상태는 어떠하며 비니트에서 니트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경제활동상태에 있던 사람들일까? 다음의 <표 10>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니트에서 비니트로 탈출한 100명 가운데 58.5명은 취업상태로 이행하였으며 40.9명은 비경제활동상태(예컨대 통학 등의 상태)로 옮겨갔고 나머지 0.6명은 실업상태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니트에서 비니트로의 탈출이 성공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반면 2003년에 비니트였다가 2004년에 니트로 진입한 사람 100명 가운데 54.8명은 취업상태에서 옮겨온 사람들이며 44.4명이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이행하여 왔으며 실업에 있었던 사람은 0.9명에 이른다.

<표 10> 니트와 비니트 간 이행자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천명, %)

	취업상태	실업상태	비경제활동상태
니트→비니트	226 (58.5)	2 (0.6)	158 (40.9)
비니트→니트	260 (54.8)	4 (0.9)	210 (44.4)

주: 단, '니트→비니트'에서 경제활동상태는 2004년의 상태이고 '비니트→니트'에서 경제활동상태는 2003년

의 상태임.

니트와 비니트 유출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취업상태라는 사실은 일면 사회 부적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이 취업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매우 불안정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일 수도 있다.

## 2. 니트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

이제 취업으로 옮겨감으로써 니트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취업이행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해 보자. 이는 로짓(logit)이나 프로빗(probit) 등의 분석을 통해 가능하며 분석에 필요한 변수들을 잘 사용할 경우 취업확률 결정요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는 가구소득을 비롯한 소득변수들을 비롯한 중요한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변수들을 제외한 상태에서 가용한 변수들만으로 니트에서 취업상태로 옮겨갈 승산비 결정요인들에 대해 분석하기 한다.

<표 11> 니트에서 취업으로 탈출요인 분석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p-값
상수항	-5.3722	0.0988	<.0001
성별더미(남성 기준)	-0.2855	0.0058	<.0001
연령	0.4484	0.0077	<.0001
연령제곱	-0.0087	0.0002	<.0001
중졸이하더미(대졸이상 기준)	-0.8856	0.0132	<.0001
고졸더미	-0.2376	0.0080	<.0001
전문대졸더미	0.0400	0.0101	<.0001
부산더미(서울 기준)	-0.2754	0.0098	<.0001
대구더미	0.0727	0.0108	<.0001
인천더미	-0.0047	0.0143	0.7445
광주더미	-0.6932	0.0146	<.0001
대전더미	-0.5667	0.0175	<.0001
울산더미	-0.0448	0.0175	0.0105
경기더미	-0.6083	0.0088	<.0001
강원더미	-0.0209	0.0165	0.2057
충북더미	-1.2584	0.0189	<.0001
충남더미	-0.0159	0.0170	0.3488
전북더미	-1.4791	0.0187	<.0001
전남더미	-1.1748	0.0206	<.0001
경북더미	-0.6401	0.0140	<.0001
경남더미	-0.2516	0.0149	<.0001
제주더미	-0.1651	0.0261	<.0001
-2LogL	742,325	관측수	584,016

분석에 사용한 설명변수들은 <표 11>에서 보듯이 성별 더미변수, 연령, 연령제곱, 학력더미, 지역더미 등이다. 지역더미변수는 지역별 노동시장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3개의 지역더미변수를 제외하고는 추정치들이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하다. 먼저 성별더미변수를 보면 그 계수 추정치가 음(-)의 값을 가져,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남성일수록 니트에서 취업으로 이행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연령에 대한 계수 추정치는 양(+), 값을 가지고 연령 제곱의 계수 추정치는 작은 음(-)의 값을 가져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상태로 옮겨갈 확률이 크지만 그 정도는 점점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더미변수들의 경우를 보면 고졸자와 중졸이하자의 계수 추정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 이들의 취업가능성은 대졸이상 학력집단에 비해 낮다. 고졸자의 추정치는 -0.24인 반면 중졸이하자의 경우 추정치는 -0.89로 상당히 작게 나타나 저학력 니트의 취업가능성이 더욱 저조함을 알려준다. 전문대졸 집단의 경우는 대졸이상의 경우보다 취업확률이 미소하게 높다.

지역더미변수들을 보면 전북, 충북, 전남에서 니트의 취업 가능성이 특히 낮게 나타난다. 대구지역은 유일하게 계수 추정치가 양(+), 값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으나 추정치의 크기는 0.07로서 매우 작다.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서울지역에 비해 취업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 물론 인천지역과 강원지역 및 충남지역의 경우 계수 추정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지만, 위의 결과는 지역별 노동시장의 편차로 인해 니트의 취업확률이 상당히 달라짐을 알려준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무업자의 규모가 의외로 클 뿐만 아니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가운데 구직자, 즉 실업자를 제외한 니트인 비구직 니트의 규모가 2004년 80만 명에 이른다. 이는 실업자 40만 명의 두 배에 해당하며, 10년 전인 1995년의 비구직 니트 27만 명에 비해서도 53만 명이나 증가한 결과이다. 그리고 비구직 니트의 증가는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강한 추세를 보인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 개인적으로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파장이 초래될 수 있다.

더군다나 비구직 니트 가운데 35%~39%가 취업을 준비하거나 진학을 준비하는 등의 활동도 없이 그냥 쉬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구직 니트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은 1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며 90% 이상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 않다.

어떤 요인들이 청년들을 니트로 이행하게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가설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모형을 세워 로짓분석을 하였다. 중요한 사실은 청년들의 학력이 높을수록 니트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아버지의 학력은 낮을수록 자녀가 니트일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종사 직종이나 고용형태도 자녀의 니트 이행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아버지가 비정규직이거나 무급가족종사자일 경우 및 고용주일 경우 자녀가 니트로 될 확률이 아버지가 정규직인 경우에 비해 더 높다. 이는 니트 이행 가능성에도 양 극단이 존

재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하며 이후에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알려준다. 아울러 출생지역과 성장한 지역 및 현재 거주지역이 니트화 경향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인 고려의 중요성도 알려주고 있다.

한편 비구직 니트 가운데 30%는 1년 후에도 그대로 비구직 니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심각한 상태인 은둔형 외톨이 등과 같은 형태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니트에서 벗어나 사람들 가운데 취업상태로 옮겨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60%에 육박할 정도로 높지만, 새로 니트로 진입하는 사람들 가운데 55%가 취업상태에서 옮겨오고 있어 니트와 非니트를 오가는 사람들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니트에서 취업상태로 탈출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면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크고 저학력자의 취업확률이 낮음을 볼 수 있다. 가구소득에 대한 정보가 없어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는 없으나, 저학력자의 가구소득이 낮을 것으로 본다면, 고졸이하 학력자의 낮은 취업확률은 이들을 보다 심각한 상태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상의 분석과 청년실업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니트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무엇보다도 니트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이제야 실태가 파악되기 시작한 단계에서 니트에 대한 취업대책을 말한다는 것은 청년실업에 대한 우리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니트에 오래 머물며 보다 심각한 상태로 전락할 위험이 큰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고, 각각의 집단에 대해 이들의 특성에 맞는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니트 가운데 특히 취업을 희망하지도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으며 니트에 1년 이상 머물고 있다면 이들은 은둔형 외톨이를 비롯한 보다 심각한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이 그러한 상태로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팎의 예방적인 조치와 심리적인 치료 등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며 자세한 실태를 조사하여 충분한 정보를 확보한 뒤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 주관적이며 선부른 예단에 입각한 정책 입안을 막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들을 미리 갖추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영배, 「일본의 청년무업자(NEET)」, 한국교육사회학회 2005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5.
- 김기현, 「니트(NEET): 일본 청년무업자의 특징과 실태」, 『국제노동브리프』, vol. 3, No. 5, 한국노동연구원, 2005. 5.
- 남재량, 「청년실업과 신규졸업자 실업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 학술대회, 2002.
- 정후식, 「최근 일본의 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대응현황: 비정규직 및 니트(NEET)인구의 증가를 중심으로」, 『한은조사연구』 2004-14, 한국은행, 2004. 11.
- 후타가미 노우키, (이성현 옮김) 『일하지 않는 사람들 일할 수 없는 사람들』, 홍익출판사, 2005.
- The Social Exclusion Unit, 『Bridging the Gap: New Opportunities for 16-18 Year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1999.

<부표 1> 지역에 대한 계수 추정치

	출생지역	성장지역	거주지역
서울	기준지역	기준지역	기준지역
부산	-0.3252***	0.5992***	-0.1944***
대구	-0.5558***	0.5134***	0.1341***
대전	-0.2769***	0.3894***	0.5422***
인천	0.0392***	0.7002***	-0.2789***
광주	-1.5600***	0.2337***	1.0841***
울산	-0.2060***	0.2375***	0.4668***
경기	-0.4491***	0.1393***	0.6471***
강원	0.1839***	1.5054***	-1.4600***
충북	0.3151***	1.0941***	-1.0033***
충남	-1.6733***	1.8557***	0.2030***
전북	1.2228***	-0.8386***	0.6295***
전남	-0.9591***	1.0002***	0.1355***
경북	-0.4412***	0.1939***	0.3529***
경남	0.1104***	0.3170***	-0.0920***
제주도	11.4081	-	-